

공짜노동 OUT! 속임인증 OUT! 폭언폭행 OUT! 의료법 준수 OK! 안전한 병원 만들기 OK! 노동이 존중되고 좋은 일자리 만드는 고대의료원



교섭속보



2019년 8월 14일 수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노재욱

노사 신뢰 회복 앞당긴 2019년 산별현장교섭 자율타결!

▲ 임금 총액 3.9% 인상 (임금 2.26%, 상여금 30%, 위험수당인상)

▲ 인력 20명 증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10명 전환

2019년 노사 신뢰의 큰 걸음 내딛은 산별현장교섭 자율타결!

6월 27일 1차 산별현장교섭을 시작으로 약 2달간의 투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교섭 기간만 되면 적대적 노사관계를 표방하며 노사 자율적인 논의를 거부하고 노동부의 조정결과만을 기다리고 파업전야제에 가서는 마지막 합의를 이뤄내는 비효율적인 교섭방식을 과감히 벗어던졌다.

노사 모두 자율 타결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며 교섭 중 노사문화, 조직문화, 인력문제 연구용역 보고를 노사가 함께 듣는 등 조직을 이해하고 직원들의 고충을 들으려 하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됐다. 그리고 실무교섭을 통해 노사가 직원들을 위한 큰 결단에 이르게 된 것이다.

노사관계 회복과 노사 상생의 첫 걸음으로, 의료원 발전에 함께하자!

의료원은 이제 1조 클럽의 반열에 올라 대한민국 의료계의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매김하며 더욱 더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있다. 또한 7000여명의 큰 조직을 이끌어가야 하는 무거운 짐도 짊어지고 있다.

결국 무엇보다도 조직관리, 인사관리 등 내부 운영이 중요해지는 만큼 현장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그 노력을 의료원만 할 것이 아니라 교섭을 통해 노동조합과 논의하고 고민한다면 훨씬 더 빠르게 대한민국의 의료를 선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교섭이 서로의 요구와 입장을 내는 곳이 아니라 의료원 발전을 고민하는 성숙된 교섭이 되길 기대해본다.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2019년 8월 19일(월) - 22일(목) 4일간

2019년 고대의료원지부 산별현장교섭 잠정합의서

1. 정규직원의 임금은 총 3.9%를 인상한다.
 - ① 임 금 : 2.26% 인상 (총액기준)
 - ② 상여금 : 30% 증액(연간 1,080%, 매월 90% 균등 지급)
 - ③ 위험수당 : 1만 5천원 인상
2. 소급적용 지급대상자는 합의서 조인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한다.
3. 임금인상 소급분은 2019년 10월 25일 급여 지급 시 지급한다.
4.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2019년 고대의료원지부 산별현장교섭 기타합의서

1. 정규직 인력 20명을 증원한다. (2020년 2월 29일)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10명으로 한다. (2020년 2월 29일)

- 8.15 전국노동자대회에 함께갑시다 -

